

해경, '바다안전망' 구축 환골탈태 결의

현장중심, 국민중심 안전관리 각오다져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에서는 경기도 화성 레저 보트 침몰,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전국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파출소장, 상황실장, 홍보 및 감찰 등 치안접점부서 13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사고 구조체계 및 근무기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승재 청장은 교육에 앞서 먼저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과 국민들께 해상치안 및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 모두 머리숙여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고를 받은 해경이 조금만 일찍 출동했어도 인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텐데..."라는 생존가족과 국민들의 안타까움은 우리 해경에게는 정말 부끄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하였다. 해경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타성과 고정관념을 탈피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장중심, 국민중심'의 해상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난대응체계 혁신방안으로 선진형 수색구조 혁신을 위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역점 과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일선 출장소, 함정직원 교

육 및 모의상황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자동항법 장치·적외선 열상장비를 갖춘 헬기도입 확대, 양식장등 연안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과 RIB보트 등 첨단장비를 일선 파출소에 배치하는 등 장비확충 방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밖에도 인력확보 및 제도개선을 위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2006. 4월시행)에 따른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경찰관 1인근무 266개 출장소를 단계적으로 파출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해경은 이번 사례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빠른 기간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6월1일 한진중공업에서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과 (주)한진중공업 김정훈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000톤급 경비함 '태평양 6'호 진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진수된 '태평양 6'호는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및 해상 조난 수색구조 국제협약에 따른 광역 해상경비, 어자원 보호 및 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조되었으며 특히, 헬기 격납고가 있어 해상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접근,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비함은 길이 110미터, 폭 15.4미터의 규모에 최대 21노트로 항해하면서 해상경비, 수색, 화재선박 소화 및 1만톤급 선박을 예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오는 12월 제주해양경찰서에 인도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